

**96 공업기반 기술과제 131분야 고시
한지 전통 기술개발 지원등 710억원 규모**

통산산업부에서는 96년도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비 7백10억원이 지원되는 1백13개 기술 분야를 확정하여 고시했다.

통산부는 또 이들 고시된 기술분야 외에도 핵심부품, 신소재,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관련된 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지분야에서는 고강도 지관 원지 제조기술, 재생섬유의 강도회복을 위한 처리기술 등 2개 과제가 고시되었는데,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은 오는 5월27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신청해야 한다.

통산부는 신청된 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해 8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원업

체를 선정, 과제당 3억원이내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동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대상 분야로 전통칠기의 품질향상 기술, 도자기 제조기술, 한지 제조기술, 전통 섬유 개량기술, 천연염색 활용기술을 선정하였는데, 한지제조기술 세부기술 분야로는 한지용도에 따른 물성의 표준화 기술개발, 한지원료 펄프생산의 공업화 기술개발, 기계초지용 한지원료 처리기술 개발, 한지 제조용 대용 섬유자원의 개발 과제 등이다. 동과제 신청은 6월3일부터 6월 8일까지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지원실(전화02-8601-625)이다.

**골판지·상자·라이너·골심지 규격 통일집약화
골판지포장조합 (안) 확정후 본지통해 지상공청회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5월 9일자로 수년에 걸쳐 계획 추진하여 왔던 골판지포장산업 원부

자재인 골판지용 라이너 및 골판지용 골심지의 거래규격 통일단순화·집약화와 골판지용 잉크색상의 집약화시

(안)이 성안되어 조합 품질기술위원회 1차 예심을 거친후업계에 조회하였다.

동 시안의 규격내용은 외부포장용 골판지, 골판지상자, 골판지용 라이너 및 골심지 등 4개 KS 규격으로서 종래 골판지포장은 파열강도위주 품질기준에서 최근 중시되고 있는 입체창고 물류시스템에 적정한 상하강도인 압축강도 병행과 파열강도 10%선 하향조정 및 현행 국내용과 수출용의 구분실익이 없으므로 수출용 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시안을 설정하였으며, 골판지용 라이너 및 골심지의 경우는 실거래 필요평량으로 통일 단순화, 집약화하고, Edge Clush 강도를 정규격화 하였다. 동시안이 안으로 확정되면 관계업계 서면조회는 물론 본지에 게재하여 지상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농산물포장 규격 통일·표준화
골판지포장조합, 농림수산부에 건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포장표준화가 유통 및 수출산업의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파일

및 화훼포장용 골판지상자의 적정포장 대책과 포장구매 비용 절감대책을 건 의하였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대 부분의 수출농산물포장비가 직간접 지원되고 있으나, 수출업체별 개별구매 로 인한 가격교섭력 약화 및 포장규 격, 인쇄색상 및 디자인 등의 다양각색 다양화로 수출상품의 이미지 통일화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포장지원 사 업 목적에 합당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물류 시스템에 부합한 적정포장규 격 설계와 공동구매를 통한 구입 원가 절감 실현을 건의 촉구하였다.

**농산물포장 규격 치수 표준화 사업 참여
골판지포장업체, 69종 690매 시험용품 제공**

국내 농산물포장 규격을 관리 지원하 고 있는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농산물 검사시험소에서는 고시 활용되고 있는 농산물포장 표준 규격을 KSA 1002 포장의 표준화 치수 규격에 맞는 정수 분할 계열치수를 전면 개정하기 위하 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표 준규격 골판지상자 시험용 시제품 제 작을 의뢰한 바 있어, 중견 골판지상 자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제작공급 협 조하였다.

동 검사소에 따르면, 현행 규격은 국 가 차원에서 추진중인 1100× 1100mm의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 방 향과 맞지않아 금년도에 펠리트 표준 치수와 일치시키는데 필요한 농산물 포장 실용시험을 목적으로 제작협조

**국산기계구입 자금 외화대출 확대
7월부터 25-30억달러 규모시행 계획**

정부는 96년도중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외화 대출 규모를 25억-30억달 러 규모로 승인하고, 신기술개발품목 에서 일반 기계에까지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자본재 산업육성과 무역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본재산업육 성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서 허용기로 원 칙만 확정된뒤, 구체적 시행이 미뤄져 왔던 것을 외화 대출관련 규정을 개 정, 구체적인 용자대상품목, 용자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은 올 하반기 부 터 7-8% 수준의 저리로 국산기계류 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외 환대출은 용도가 외국산 자본재 수입 에 한정되어 국내 자본재산업을 약화 시키고, 무역수지적자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어왔다. 이와같이 국산기 계와 수입기계의 금리가 같을 경우, 관세에서 유리한 국산기계 수요가 촉 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골판지포장 판매정책연수
Salesman Work Shop 96 개최
5.27-5.28일, 용인 금박산연수원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96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는 제2회 골판 지포장공업 판매정책 연수대회(Sa- lesman Work Shop 96)를 5월 27, 28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용인군 소재 금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대회는 "골판지포장기업 이 운 확보 판매관리 기법"을 대회 주제 로 하고, 『우리는 포장과 상품가치와 물류 Cost를 판다.』를 대회 테마로 하 여, 『세계 포장산업의 동향과 포장비 정책』 및 『골판지포장 기업의 채산성 확보 기본전략』을 주제로한 강의와 골 판지포장 기업의 영업사원 사내교육 교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전원 참석하 여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충청지역골판지포장 경영협의회
4월 15일 대전서 96 정책 설명회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은 96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전라·충청지역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를 대전소재 리베라호텔 특설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3월15,16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바 있는 부산,대구회의에 이어, 신임 이사장의 각지역 순방과 금년도 포장산업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 류이사장은 정부의 지방화정책과 세계일류화 추진정책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노력과 업체간 상호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앞서 충청지역협의회 위원장인 한청판지공업(주) 이원진 대표이사는 업체간 공정경쟁풍토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타지역 업권에 대한 과당투매가 있어서는 않된다고 말하였다.

결과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중소기업회원의 희망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소송비용으로 법률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변호사회는 상설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고문변호사를 상주시켜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중소기업인 또는 일반 사업등록자로 연회비 250,000원(총 비용 500,000원중 반액은 조흥은행 공익사업단에서 지원함)과 함께 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문의처:02-522-9100)

골판지포장조합 단체표준규격 승인신청
오이 등 6개 골판지상자 규격(안) 제정 완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95년 공업진흥청의 기술지원하에 규격 초안작성이 완료된 오이 등 6개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의 단체표준규격을 지난 5월6일자로 국립기술품질원에 승인신청 하였다.

업계에서 단체표준규격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농산물의 포장화 상품화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포장재의 적정 규격 설정으로 합리적인 포장재 구매 및 생산을 유도하고,이를 토대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지난 92년 3개품목, 93년 4개품목을 제정 승인 받는데 이어, 95년 5월부터 제정 검토된 오이,쌀,감귤,복숭아,감자,화훼포장용 골판지상자 규격은 공업진흥청의 기술지원으로 강원대학교 조병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경북대 이종

윤 교수,동국대 최정현 박사 등 6명의 기술지도위원이 참여한 바 있다.

이로써 골판지상자 단체표준규격수는 13개품목이 되며, 96년도 제정 예정인 7개품목을 합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 출범
중기 경쟁력강화 지원 목적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사분쟁 등의 분쟁발생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손해를 최소화 시켜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소속 변호사 중에서 100명 내외를 선임,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의 사업을 수행케하고,법률상담

외국인 연수생 5월중 업체신청완료
6천9백여사 4만5천명 신청 집계

중소기업협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15일까지 외국인연수생 배정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6천9백여개 업체로부터 4만5천여명의 연수생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청 자격의 완화 및 업체당 허용인원이 확대되고 인력난이 극심한 영세업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청인원이 올해 활용 허용 인원인 1만9천명을 훨씬 상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결과 연수생 활용업체의

회망국가별을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순으로 연수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활용 연수생들의 근무태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중앙회는 밝혔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5월중으로 연수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하순부터 외국인 연수생을 산업현장에 배치할 계획인데, 골판지포장업체에서는 지난해 36개사에서 203명을 배정받아 200명을 활용하였다.

용평점이 75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권 가계수표발행용지는 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신용평가표에 따라 가계수표 500만원권을 발행할수 있는 신용평점 75점을 얻으려면 *영업기간 10년 이상(10점) *나이 40세 이상(10점) *배우자·자녀 존재(10점) *재산세 연30만원 이상 납부(10) *은행수신 거래 10년 이상(10점) *최근 은행예금 3개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20점) *거래은행의 골드카드 소지(10)등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서 75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공과금 월50만원 이상(10점) *은행이용도 평점(10점) 등에서 점수를 더 보태야 한다.

日本野菜包装 流通 調査 · JCBM 展示會 參觀
世界的 Symbole 三田 Rengo 工場도 視察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총17회가 되는 해외포장 시찰을 위하여 9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포장산업 시찰 및 일본 배추 등 채소포장 유통실태 조사겸 제10회 일본 지기·지공·골판지기계전(Japan Carton Box·Converting Machinery Exhibition) 참관단을 파견한다.

금번 시찰에는 골판지포장기계 전시회와 신 골판지포장재의 동향파악을 비롯하여 특히, 세계 골판지포장공장

의 Symbole 격인 Rengo 주식회사의 효고현 Sanda 공장을 시찰하며, 근래 포장의 Color화 다색화 고급화 경향과 관련하여 기술력이 한층 높은 Hamada 인쇄기계주식회사 및 나고야 ISWA 공장을 방문하는 한편, 우리 한국골판지포장 업체가 주력해야 할 배추, 무우 등 야채포장의 골판지화를 촉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국 채소포장 대도시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매우 알뜰한 스케줄로 되어 있다. 시찰단원수는 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건교부 97년부터, 과목은 4개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1997년부터 매년 물류관리 인재의 양성차원에서 물류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물동량의 대량화에 비하여 물류이론의 체계화와 물류관리가 크게 낙후되고 있음에 비추어, 물류의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자문 등의 물류업무의 전문인 배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류관리사의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복합운송론, 물류회계학, 물류관련법령 등 모두 4개 과목으로 당분간 객관식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 가계수표 발행요건 강화
은행 연합회, 7월 1일부터 공동 실시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용 가계수표 발행요건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은행 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금융분쟁 조정신청 중 가계수표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가계수표 이용자가 수표발행 및 이용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수표 부도율이 크

게 높아진데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95년 11월호 골판지포장·물류지, 136p참조)

그 동안 각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임의로 평가, 가계수표 발행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는 은행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에 의해 가계수표 용지를 교부하기로 하고, 현재 100만, 500만원권등 2종류로 발행되던 가계수표용지가 100만, 300만, 500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되며 신

한국한지문화 연구회 발족
96년 4월 27일 동국대학교내에서

지난 4월 27일 (가칭) 한국한지문화 연구회가 정식 발족되어, 일찌기 우리 한지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통 한지제조 기법의 보존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한지의 제조, 제지사(과학사), 고고학, 미술·서예, 문화재 복원, 제지학, 인쇄 등 기타 광범위한 관련분야

인사들의 역량을 모아 옛 한지문화의 찬란한 역사를 계승 발전 지키고져 한국한지문화연구회가 발족 되었다.

회장에는 조형균 선생, 총무간사 조병목 교수, 재정간사 전철 교수, 감사 오정수·류운영 교수가 선임되었다.



▲ 한국한지문화 연구회 결성을 마치고



▲ 개회사를 하는 조회장

이미 여러분께서 받으신 발기 취지문을 통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한 마디로 '한지'를 어떻게 살려 내느냐? - 이 한가지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로 부터 빛나는 문화 유산을 받아왔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 유산 자체를 지키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못난 후손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칭 "한지문화연구회"라고 우리가 지난번 발기인 모임에서 결정을 보았는데도 "한지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한지의 생산분야 이외의 모든 주변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혹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지 자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밖의 모든 관련분야도 옹기 살아나고 건전한 발전이 되는 그 핵심의 자리에 한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간략하게 "한지를 살려내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 앞에는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선 얼핏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고유 언어인 '종이'라는 말의 어원조차도 우리로서는 규명이 안되어있는 상태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D 610년 고구려 스님 담징(曇徵)에 의해서 제지술을 전수 받은 일본사람들은 종이를 "가미"라고 부르며, 지(紙)자를 써놓고 그것을 통상적인 일본어 발음인 '시'라고 읽지 않고 "가미"라고 읽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그 "가미"의 어원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어서 한 네가지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미'라는 어원에 대해 저 나름대로 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말의 '감', '검', '곰' 하는 일년의 같은 어원의 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얀 닥종이는 고대 그 사람들의 샤머니즘적인 예배의 대상인 신체(身體) 노릇을 해온 것

〈 한국한지문화 연구회 창립 개회사 〉

이 사실이며, '가미'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것으로 그 신(神)을 일본말로 '가미'라고 읽고 말하는데서 종이(종이가) '가미'가 됐다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神)을 '가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말 '감님', '점님', 그리고 단군신화의 '곰' 등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아주 최근에 우연히도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어떤 학자도 그런 주장을 즉 종이의 '가미'는 바로 '가미(神)에서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 '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 '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한지문화연구회가 앞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한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한지 제조의 쇠퇴는 그야말로 전통 수록(手鹿) 한지를 뜨는 집이 열 손가락 이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곤란을 무릅쓰고 옛 공법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은 한두 분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그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만, 구한말 당시의 우리나라 한지 생산의 중심지는 경상도 월성군을 중심으로 한 경주지방, 의령을 중심으로 한 의령지방, 그리고 전주를 핵으로 한 전라도지방의 이 세 군데가 주요 한지 생산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내던 곳은 전라도 임실군(任實郡)이었음이 통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임실군이 단연 최고의 생산량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의 제조기법을 본다면, 외발뜨기 기법이라 하여 이른바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홀림뜨기' 기법의 가장 프로토 타입을 이루고 있던 것이 일제하에 접어들면서 개량 한지라 하여 그 발위에 틀을 얹고 한줄 대신 두줄로 앞쪽을 매단 다음, 두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뜨는 - 이것을 요새 '쌍발뜨기'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용어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요컨대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외발뜨기와의 차이는 발 위에 틀을 얹어서 지료를 어느 정도 가두면서 흔들다가 나중에 물을 버리는 기법이라 하겠습니까. 즉 기법상으로는 과거 36년 동안 이 두 기법의 공존시대로 내려오다가 해방후로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완전히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창호지와 장판지의 절대 수요에 의하여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급기야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예를 잠깐 본다면 1894~5년대, 즉 메이지 27~8년대에 화지와 양지의 공존시대로서 아직도 이른바 '화지'대 양지의 비율은 화지쪽이 7:3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1905년을 전후해서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생김으로써 급격한 양지 수요의 폭발로 4:6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오늘날 극도의 서구화로 인한 기계문명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전통 수록지의 생산량은 양지 생산량의 0.1%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0.1%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일본의 연간 양지 생산량이 2,200만톤이므로 22,000톤의 전통 수록지를 아직도 생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장 우수한 천연 자원인 닥섬유를 팔아 먹는 것이 고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수록 화지를 뜨기 위한 원료 조달중 편이상 닥섬유 부분만을 본다면, 매년 일본 국내산 닥 230톤, 태국산 수입 400톤, 그리고 한국에서 40~50톤의 닥섬유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400개 수록 화지 생산처가 있으며 50여 지향(紙郷)에서 제 각기 특수 지방 산업으로서 고유 상품명과 그 품질을 지키면서 자기 고장의 전통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생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세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여기에 눈뜬 청년들이 수록 화지 청년모임을 조직한 지도 금년 22주년이며, 매년 활발한 연구 발표회와 교류, 그리고 정기 간행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록 한지 생산이 그들과 대등한 쇠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95년도의 양지 총생산량 6,877,564톤의 0.1%라면 6,800톤~7,000톤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우리의 수록한지 생산량을 논함에 있어서 '톤'이라는 단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분발 각성해야 할 것인가를 통감하게 됩니다.

〈 한국한지문화 연구회 창립 개회사 〉

우리는 오히려 오늘날 전통 한지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엄연히 서양식 기계제지 분야가 있고, 그 기계제지의 시설 기법을 가지고 재래식 수륙화지를 어느만큼 모방할 수 있으나 하는 접근을 추구해 온 '기계록 화지'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순수 수륙지 분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야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선이 있고 그 제품의 차이 특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제 각기 자기 분야를 견지하면서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계선과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 혼동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전국 수륙화지 연합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의 마당에서 「고급지는 수륙지라야 한다. 범용성이 있는 종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계록 화지와 수륙화지가 공존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수륙 화지가 아니고는 안되는 분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11~13세기 고려 현종과 고종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으며, 해인사에 그 경판을 보존해 옴으로써 유네스코에서 지구상 인류(人類)의 대표적 문화재의 하나로 지정된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한 질의 책은 6,708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찍어내기 위한 경판(經板)은 총 86,686장의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질(한 질)의 팔만대장경을 찍어 내는데 소요되는 종이는 162,890장의 닥종이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몇질을 찍었는지 공부가 열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 역시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앞으로 활발한 학제(學際)간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라 하겠습니다. 만일 100부를 찍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종이 소요량은 적어도 약 1,630만장의 닥종이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수륙지 통수로 환산해 본다면 편의상 300장으로 나누어서 54,333통. 일년에 봄 가을 합해 100일을 작업했다고 가정하고 약 543통의 지통으로 작업을 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종이 수요가 있었을 것을 감안한다면 수천 호의 종이뜨기 농가가 있었으리라는 것이 짐작됩니다.

고려지라는 이름의 이같은 왕성한 한지 생산은 그대로 조선조로 이어져, 세종시대의 문화중흥으로 인한 종이의 수요 폭발로 더욱 융성을 가져왔고, 판용 조지서(造紙署)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한 농촌의 극도의 피폐로 막대한 타격을 입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지 제조가 오늘날 불과 몇 집으로 남아서 그 씨가 말라간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다면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우리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자명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돌도·토인비는 여태까지의 인류 문명의 성쇠·흥망을 총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한 결과, 한 문명의 흥망의 단위를 3000년 사이클로 보고, 지금은 피크에 달했던 서양문명이 비야호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동방으로 그 문명의 중심이 옮겨질 것이라는 예측을 결론으로 말한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이 문화 유산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라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발굴하고 갈고 닦아,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만분의 일이라도 다함으로써 우리의 선인들과 장차 오는 후세들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긴 말씀을 다 약하고, 이것으로써 오늘 우리의 이 한지문화 연구회 창립 총회의 개회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27일



**청도농협 복숭아상자 패션 채색골판지 채택
(주) 장천 TLB 원지 인기리 공급계약 완료**

골판지상자, 미장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등 종합 지류포장 System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주식회사 장천(대표이사 이 상건, 경기 안산시 소재)에서는 지난 95년에 도공지 사업부를 발족하면서 SC마나라 합지 골판지상자의 문제점인 내절도를 향상시킨 다양한 채색(彩色) 칼라 골판지원지(TLB)를 제조함으로써 패션 골판지상자 개발에 성공하였다.

종래의 골판지상자가 원색, 황색, 백색

으로만 제조 공급되어 왔으나, 동 TLB골판지상자는 내용물의 종류, 제조업체, 생산지역에 따라 표면라이너의 색상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SC마나라 합지 미장골판지상자가 옅은인쇄, 합지, 다이컷팅, 스틱칭 등 많은 분리 공정을 필요로 하고, 합지과정에서 골 늘림·터짐 등의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점에 비하여 동 신제품은 일반 골판지상자와 동일

한 공정으로 제조되어 합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없어, 원가절감은 물론 품질유지에도 효과적이며, 인쇄 화상도는 마나라 또는 백라이너의 백색도보다 10정도가 선명하고, 칼라매치가 자유자재로 되어 옅은 미장 골판지상자 수준으로 미려하기 때문에 다색화 포장수요 패턴에 부합함으로써 포장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동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경북농협 청도군 지부 수요 청도 복숭아, 청도 감 등의 포장소재로 채택하였고, 광주·전남 지역 200여 농협 사용 골판지 포장재를 포장개선 및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TLB를 소재로한 작목별 디자인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년도 경북농협 청도군 지부 수요 청도 복숭아, 청도 감 등의 포장재로 채택된 주식회사 장천의 TLB골판지상자

**한국수출, 부산 골판지공장 이전
경남 양산에 97 완공예정**

1953년 창업 이래 골판지포장 제조업으로 일관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대표이사 허용삼)는 부산공장이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최근 경남 양산군에 약 200억원을 투자, 연면적 1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4월 공장 건설에 들어가 97년 3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동사는 골판지원지 (골판지용 라이너) 부문은 경기 오산공장과 부산 범어 공장에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부문은 경기 안성과 부산 범어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골판지원지에서 부터 골판지상자까지 제조하는 일관 생산 시스템을 갖춘 국내 골판지포장제조 대표적 기업이다.

동사는 현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1억 2천만m²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산공장이 준공되면 일본 NIWA 제작의 지폭 2200mm, 분속

250m 골판지 제조기를 도입하고, 최근 포장수요 패턴인 소량 다품종생산 및 변형상자화 추세에 부응한 프랑스 MARTIN사 제작 Rotary Die Cutter 도입으로 생산능력은 1억 7천만 m²로 늘어 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인건비 상승 및 사내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94년에 업계 최초로 안성공장에 4대를 도입한 바 있는 완성공정의 로봇시스템을 양산공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M/T, 85.9억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는데,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의 안정기조 지속과 저금리 실리를 감안하면, 향후 동 조달기금활용 골판지원지 공동구매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이며, 중소기업지원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매 2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활용하고 있는 동사업의 제5차분(7,8월 소요분) 비축물자 활용 공동구매 신청을 6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동자금활용 문의 : 조합 공동사업과, 02-594-0381)

**마립인터내셔널 Canvas 없는 열판 개발
보일러 열량, 전력소모 및 Warp현상 저감실현**

골판지 제조기 중 Dry End부문 전문 제조 메이커인 마립 인터내셔널에서는 Canvas가 없는 열판을 개발하여 공급을 개시 하였다.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1회 아시아 골판지산업전 (Corrugated Asia 96)에 전시되었던 신개발품인 Canvas가 없는 열판은 열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전력소모 효율을 대폭향상시켜 300mpm의 경우 12kg/cm²의 보일러 압력으로 충분하고, 구동모터의 전력소모량을 75마력으로 기존의 250마력

보다 대폭 개선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열판길이가 12m내외이고 골판지의 압축강도를 20%정도 향상시킬수가 있으며, 골판지포장업계의 최대 애로기술과제인 warp(굽힘)현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열판 축소에 따른 장치면적의 축소가 가능하고, 보드상에서 좌우이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슬릿터 스코어러상에서 Tream Loss를 절감 할 수 있다. (문의전화: 마립인터내셔널 한국지사 02-430-4488)

**필프몰드소재 도시락용기 개발
한일, 15억투입 7월 양산 계획**

필프몰드 제조 전문업체인 한일(대표이사 이광문)이 전산용지, 인쇄용지 설을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도시락 용기를 개발하였다.

동사는 그동안 1백50억원을 투자하여 필프몰드 설비 및 연간 2억5천만 개 규모의 종이도시락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오는 6월까지 완공하고 7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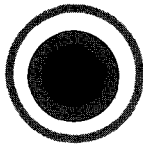
아울러 지난 3년간 금형개발등의 연구에 15억원을 들여 상품화한 종이도시락 용기는 고지에 인체에 무해한 화학약품을 섞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백화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도시락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에 나서, 올해 1백30억원,내년에 2백80억원 상당의 종이도시락 용기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골판지원지 비축 공동구매 활발
3차분 35.7억원활용, 4차 29.8억원 계약**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로 지정,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공동구매계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골판지원지 공동구매사업의 3차분(96. 3, 4월분)이 완료되고, 지난 5월초 5, 6월 소요분 (4

차분)이 계약체결 진행되었다. 그동안 골판지원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협력과 조달청의 중소 폐지 Recycle 재활용기업계 경영안정 지원 정책에 힘입어, 총 사업규모 33.092



第10回 JCBM OSAKA 6.13-16 開催
테마:오늘을 보며 來日을 創造하는 Technology

일본 인덱스 OSAKA 4·5호관에 서는 96.6.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10회 전국 지기·지공·골판지기계 전(Japan Carton & Box Converting Machinery Exhibition: JCBM 96 OSAKA)이 개최된다.

동 전시회는 1981년에 제1회 개최한 이래 금년이 열번째로 1회때에는 출품사가 38사에, 346소간, 1만여명의 관람자에 그쳤으나, 금 10회에는 출품 76사, 657소간 규모이며, 3만명 이상의 관람자가 내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회의 전시회 테마는 「오늘을 보며, 來日을 創造하는 Technology」로서, 주요출품은 Flexo Folder Gluer, Printer, Slotter, Auto Flat Die Cutter, Slitter Scorer, Glue Machine, CAD System, Digital 제판 System, Bar Code System, Robot Palletizer, Product Control System 등 첨단 무인 기기가 전시된다.

주요 출품 회사로는 4호관에 상에

이 Group, 니와철공소, 닛끼공업, 하사히가세이공업, 니혼덴시전기, 마루마쓰 Group 등이, 5호관에는 우찌다제작소, 하마다인쇄기계, 아사히 마사나리, 닛꼬제작소, 우메다니제작소 등이다.

제2회 러시아 국제포장전
6.24-28, Moscow서 개최

오는 96. 6. 24일에서 28까지 5일간 러시아 모스크바 전시센터 "Sokolniki"에서 제2회 국제 포장·라벨 전문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 전시회에는 각종 포장재료, 포장 기계, 첨단 기술 기자재를 비롯하여 라벨 및 포장 마킹에 관한 전문적인 모든 것이 출품된다.

연락처는 Sadovaya - Spasokaya 18, Moscow, 107807, Russia의 Organizing Committee이며, Tel: (095)2072141, FAX:(095) 2030547 이다.

"TIKETKA 96" (label)
2-nd INTERNATIONAL SPECIALIZED EXHIBITION

OF MATERIALS, MACHINERY, EQUIPMENT AND TECHNOLOGIES FOR MANUFACTURE OF LABEL PRODUCTS AND MARKING OF PACKAGES

Organizers: ASSOCIATION "SOJUZPAPK"

EXHIBITION CENTRE "SOKOLNIKI"

MAGAZINE "TARA IYPAKOVK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F

24-28 June 1996, Moscow Exhibition Centre, Sokolniki

FROM DESIGN TO PRINT RUN

**合併으로 總合經營力 強化
日本 新王子·本州가 王子製紙로**

일본의 신문용지, 인쇄용지 및 정보용지 등 종이의 종합 Maker인 新王子製紙(株)와 일본 굴지의 골판지원지, 백판지 및 골판지포장 Maker인 本州製紙(株)가 오는 96. 10. 1부로 합병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사는 원래 구 왕자제지를 모체로 하여 1949년에 발족하여 각각 독자적 분야에서 기업경영력을 발휘하여 상당한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근간의 일본 종이·펄프산업의 변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또한 격화일로에 있는 국제경쟁 강화 차원에서 합병을 결행함으로써 종이·판지 및 지가공 분야에 있어 각기 상위권의 유력기업인 양사가 합병에 의한 상호보완, 총합효과를 발휘하여 수요자의 신뢰를 높이며 제품의 안정공급체제를 확립하고, 양사는 각기의 주된 생산거점이 신오지제지는 아이지현에, 혼슈제지는 북해도에 있으나, 합병으로 한층 높은 합리화와 전국적 활동 전개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양사의 본사나 지사 등이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에 중복 설치되고 있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의 향상과 영업력 강화 등 기업력 향상에 의한 총합경영(總合經營)의 실현으로 기업체질의 강화·개선을 기할 수 있으며, 지구환경 대응책상 영속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식림규모확대를 위해서도 합병에 의하여 힘을 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제지산업의 이와 같은 합병, 매수,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를 이미 끝낸

미국·유럽의 종이·펄프산업의 구조개편 풍향에도 영향된 것으로 관측된다.

동 양사의 합병방법은 신오지제지(주)는 존속회사로 하고, 혼슈제지

(주)는 해산기로 하였으며, 신 회사사명은 오지(王子)製紙株式會社로, 신 회사 회장은 현 신오지제지 대표 취체역 사장 大國昌彦씨가, 사장에는 현 혼슈제지 대표 취체역 사장 大坪孝雄씨가 취임하게 된다. 양사 및 합병 후의 기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신오지제지·혼슈제지 합병 후 기업개요

항 목	연 도	신오지제지	혼슈제지	합 계
매상고	1994년 기준	5,525억₩	3,683억 ₩	9,208억₩
연결매상고	"	7,797억₩	4,702억₩	12,499억₩
경상이익	"	173억₩	65억₩	238억₩
연결경상이익	"	182억₩	71억₩	253억₩
종업원수	"	8,949명	5,649명	14,598명
종이·판지생산량	1995.7월 기준	3,295천 M/T	2,189천 M/T	5,483천 M/T
전국점유비	1994년 기준	11.5%	7.7%	19.2%

양사 종이·판지 생산상황(1994)

단위:M/T

품 종	신오지제지		혼슈제지		합 계		전 국
	생산량	점유비	생산량	점유비	생산량	점유비	
신문권취지	768,045	25.8%	66,200	2.2%	834,245	28.1%	2,971,801
인쇄정보용지	1,812,009	18.5%	541,124	5.5%	2,353,133	24.0%	9,805,066
포장용지	253,610	23.8%	1,966	0.2%	255,576	23.9%	1,067,199
위생용지	145,250	9.4%		0.0%	145,250	9.4%	1,547,958
잡종지	248,550	20.5%	35,056	2.9%	283,606	23.4%	1,213,876
종이계	3,227,464	19.4%	644,346	3.9%	3,871,810	23.3%	16,605,900
판 지	67,053	0.6%	1,544,507	13.0%	1,611,560	13.5%	11,921,086
종이·판지계	3,294,517	11.5%	2,188,353	7.7%	5,483,370	19.2%	28,526,986